

사도세자

회문화

표

문항씩

습

WANTED
Dead or Alive



229,229,000

1권 - 계층 + 사회 불평등

사_{회문화}

도_표

세_{문항씩}

자_습

By NOT.N

1권 - 계층 + 사회 불평등

머리말

사회문화 영역에서 도표 문항은 개념 이해와 자료 해석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도표 유형을 계층·불평등·복지 제도·부양비 등 핵심 주제로 구분하고, 각 주제마다 세 문항씩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한 주제를 반복하듯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단편적 풀이가 아닌 유형별 접근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떠먹여주는 어미새 같은 해설보단 도표 유형 문제의 적응, 그리고 스스로의 사고 과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험생이 자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채워 넣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큰 확신으로 이어질 때, 사회문화 도표 문항은 더 이상 낮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재가 독자들에게 체계적 훈련과 자율적 성장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도표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은 그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계층 편

#1 3 min 30s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음은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분포와, 부모의 계층 별로 분류한 자녀의 현재 계층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계층은 상층·중층·하층으로만 구성되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총인구는 동일하다.
 부모 세대 상층 : 중층 : 하층 인구비 = 30 : 50 : 20

(단위: %)

구분	부모세대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	상층	70	18	8
	중층	25	70	50
	하층	5	12	42
계		100	100	100

<보기>

ㄱ. 부모가 중층(B)인 자녀의 계층 이동 비율은 30%이다.
 ㄴ. 자녀 세대의 하층 대비 상층 비는 부모 세대보다 크다.
 ㄷ. 상승 이동을 경험한 자녀의 비율은 하강 이동을 경험한 자녀의 비율보다 크다.
 ㄹ. 자녀 세대의 중층 비중은 부모 세대보다 3% 이상 크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띤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 ④

해설

자녀 세대 계층 구조

상층 비중

$$\begin{aligned} &= (\text{상층 부모 비중} \times \text{상층 유지}) + (\text{중층 부모 비중} \times \text{상층으로 상승 이동}) + (\text{하층 부모 비중} \times \text{상층으로 상승 이동}) \\ &= 0.30 \times 70 + 0.50 \times 18 + 0.20 \times 8 = 31.6\% \end{aligned}$$

중층 비중

$$\begin{aligned} &= 0.30 \times 25 (\text{상층} \rightarrow \text{중층 하강}) + 0.50 \times 70 (\text{유지}) + 0.20 \times 50 (\text{하층} \rightarrow \text{중층 상승}) = \\ &52.5\% \end{aligned}$$

하층 비중

$$\begin{aligned} &= 0.30 \times 5 (\text{상층} \rightarrow \text{하층 하강}) + 0.50 \times 12 (\text{중층} \rightarrow \text{하층 하강}) + 0.20 \times 42 (\text{유지}) = \\ &15.9\% \end{aligned}$$

〈보기〉 판단

ㄱ. ‘중층 부모 -> 세대 간 이동 비율’ = 18%(상층으로 상승) + 12%(하강) = 30% → 옳음.

ㄴ. ‘상층 대비 하층의 비’

부모 세대: 30:20 = 1.5

자녀 세대: 31.6:15.9 \approx 1.99 → 부모 세대보다 큼 → 옳음.

ㄷ. ‘상승 이동’(하→중·상, 중→상)과 ‘하강 이동’(상→중·하, 중→하) 비교

상승 = (B→A) 0.50×18 + (C→A) 0.20×8 + (C→B) 0.20×50 = 20.6%

하강 = (A→B) 0.30×25 + (A→C) 0.30×5 + (B→C) 0.50×12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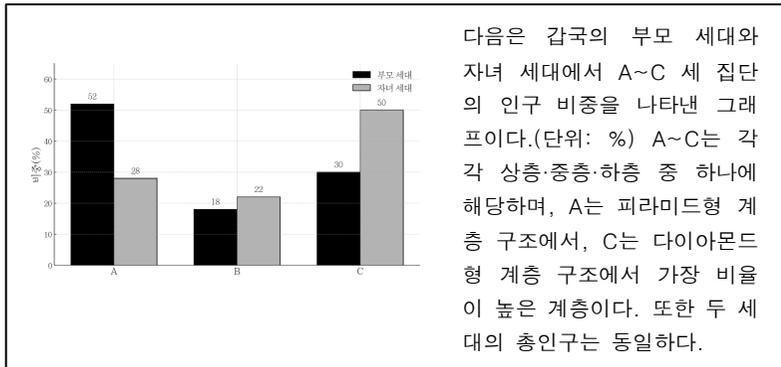
→ 상승 이동 비율 > 하강 이동 비율 → 옳음.

ㄹ. ‘중층 비중 변화’는 +2.5%p(52.5-50)로 3%p 이상이 아님. 다만 자녀 세대

는 중층 비중이 최대이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해당. 문장 전체는 앞부분이 거짓이므로 틀림.

#2 4 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ㄴ. 자녀 세대의 하층 대비 상층의 비는 부모 세대보다 크다.
- ㄷ. 두 세대에서 (중층 비중 - 하층 비중)의 부호는 서로 같다.
- ㄹ.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세대 간 상승 이동의 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 ④

해설

A·B·C의 대응: 피라미드형에서 최다는 하층이므로 A=하층, 다이아몬드형에서 최다는 중층이므로 C=중층, 따라서 B=상층.

그래프 판독(부모→자녀):

A(하층) 52→28, B(상층) 18→22, C(중층) 30→50.

ㄱ: 부모는 하층 최대 → 피라미드형, 자녀는 중층 최대 → 다이아몬드형 → 옳음.

ㄴ: 하층 대비 상층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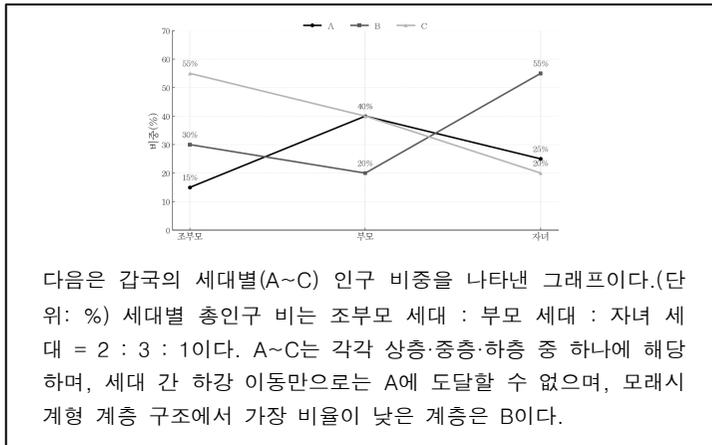
부모 18:52(≈ 0.35) < 자녀 22:28(≈ 0.79) → 자녀가 큼 → 옳음.

ㄷ: (C-A) 부모 30-52<0, 자녀 50-28>0 → 부호 다름 → 틀림.

ㄹ: 세대별 계층 분포만으로는 개별의 세대 간 이동(상승·하강) 규모를 계산할 수 없음(이동 표 필요) → 옳음.

#3 4 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조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보다 20% 크다.
- ②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③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의 전체 인구의 합에서 중층의 비율은 30%를 초과한다.
- ④ 하층 대비 상층의 비는 조부모→부모→자녀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 ⑤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의 전체 인구의 합에서 상층의 비중이 중층보다 작다.

정답 : ②

해설

조건으로 A=상층, B=중층, C=하층 식별.

그래프 판독:

조부모(상15·중30·하55) → 피라미드형

부모(상40·중20·하40) → 모래시계형 ⇒ ② 옳음

자녀(상25·중55·하20) → 다이아몬드형

① 30→55는 +25%p(+20%p 아님) → 오답.

③ 전체 세대 중 중층 = $(2 \times 30 + 3 \times 20 + 1 \times 55) / 6 = 29.17\% \rightarrow 30\%$ 초과 아님 → 오답.

④ 하층 대비 상층 = $15:55 (\approx 0.27) \rightarrow 40:40 (=1) \rightarrow 25:20 (=1.25)$ 증가 → 오답.

⑤ 전체 세대 중 상층 = $(2 \times 15 + 3 \times 40 + 1 \times 25) / 6 = 29.17\%$, 중층과 동일 → 오답.

사회 불평등 편

#4 4min 30s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갑국의 시점별 성별·고용 형태별 구성비와 월평균 임금을 나타낸 자료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이며, 각 고용 형태 내부의 남녀 비율의 합은 100이다. (단위: %, 만원)

구성비 (%)

시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중 남성	정규직 중 여성	비정규직 중 남성	비정규직 중 여성
t	60	40	60	40	40	60
t+5	50	50	50	50	50	50

월평균 임금 (만원)

시점	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t	300	270	180	180
t+5	320	288	200	200

- ① t에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3 이상이다.
- ② t+5에서 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t보다 10% 증가하였다.
- ③ t에서 전체 근로자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 비율'은 90% 이상이다.
- ④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증가하였다.
- ⑤ t+5에서 전체 근로자 기준 남성 월평균 임금은 t보다 10만 원 증가하였다.

정답 : ⑤

해설

정규직 내 여성 비율: 40% → 50% = +10%p ⇒ ② 참.

① t의 정규/비정규 평균 임금: 정규=0.6×300+0.4×270=288, 비정규 = 0.4×180+0.6×180=180 → 180/288=5/8=0.625 < 2/3 ⇒ 거짓.

③ t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성 평균 = (정규 2 : 비정규 1 가중) = 2/3×300+1/3×180=260

여성 평균 = (정규 1 : 비정규 1 가중) = 1/2×270+1/2×180=225

비율 = 225/260 ≈ 0.865 < 0.90 ⇒ 거짓.

④ t 비율 = 180/288=0.625, t+5 비율 = 190/304=0.625 변화 없음 ⇒ 거짓.

⑤ 남성 평균: t = 260, t+5 = 260 변화 없음 ⇒ 거짓.

#5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 표는 갑국의 성별·고용 형태별 구성비(전체 근로자=1)와, 해당 집단의 월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이하 임금비)을 분수로 나타낸 것이다.

	남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구성비(전체=1)	1/4	1/6	1/4	1/3
임금비(집단/전체 평균)	3/2	17/20	11/10	5/8

(임금비가 1이면 전체 평균과 같고, 1보다 크면 전체 평균보다 큼.)

- ① 남성 평균 임금 / 전체 평균 임금은 $5/4$ 이상이다.
- ② 여성 평균 임금 / 전체 평균 임금은 $6/7$ 미만이다.
- ③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3/4$ 이상이다.
- ④ 여성 내부에서 정규직의 구성비는 $1/2$ 를 초과한다.
- ⑤ 정규직 내부에서 여성 평균 임금 / 남성 평균 임금은 $3/4$ 를 초과한다.

정답 : ②

해설

남성 평균 임금 / 전체 평균

$$= 1.24$$

→ ①의 $5/4=1.25$ 이상이 아님(미만) → 거짓.

여성 평균 임금 / 전체 평균

$$= 29/35$$

→ $6/7$ 미만 → ② 참.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145/217$$

→ $3/4$ 이상 아님 → ③ 거짓.

여성 내부 정규직 구성비

$$= 3/7$$

→ $1/2$ 초과 아님 → ④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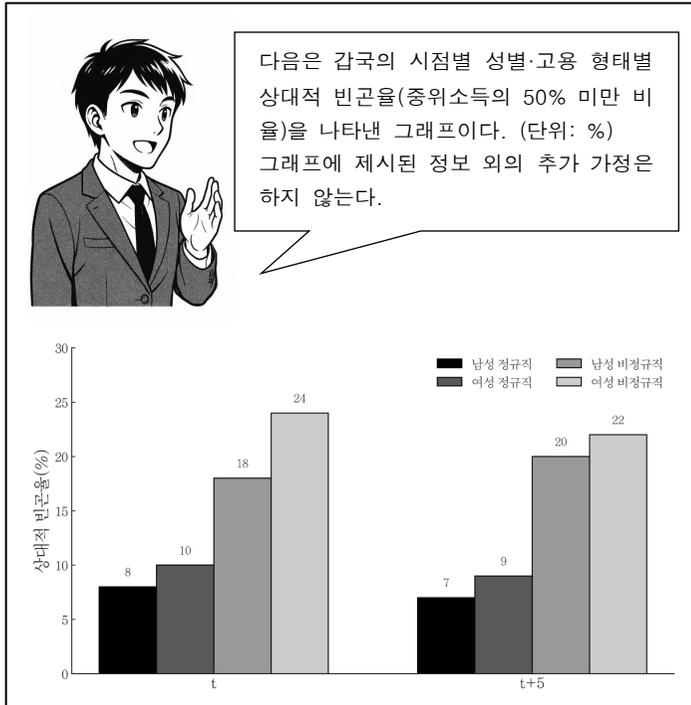
정규직 내부 여성/남성 임금 비율

$$= 11/15$$

→ $3/4$ 초과 아님 → ⑤ 거짓.

#6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t에서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0% 높다.
- ② t+5에서 비정규직 내부의 '여성-남성' 상대적 빈곤율 격차는 t의 절반 이하이다.
- ③ 두 시점에서 정규직 내부의 '여성-남성' 격차는 각각 1%이다.
- ④ t에서 여성 집단 중 상대적 빈곤율이 20% 이상인 집단은 2개이다.
- ⑤ t+5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상대적 빈곤율은 정규직 남성의 3배 미만이다.

정답 : ②

해설

그래프 수치:

t: 남정 8, 여정 10, 남비 18, 여비 24

t+5: 남정 7, 여정 9, 남비 20, 여비 22

판단

- ① 남성: 정규 8 vs 비정규 18 → 정규가 낮음($-10\%p$) → 거짓
- ② 비정규 격차: t ($24-18=6$) → t+5 ($22-20=2$), $2 \leq 3$ → 참
- ③ 정규 격차: t ($10-8=2$), t+5 ($9-7=2$) → $1\%p$ 가 아님 → 거짓
- ④ 여성 중 20% 이상: t는 여비 1개(24)뿐 → “2개”는 거짓
- ⑤ t+5에서 $22 / 7 \approx 3.14$ → “3배 미만”은 거짓



위화도 회군 이래
최고의 사회문화 자습서